

법구경 423계송

목차, 엮은 말, 26품, 423계송



김경진

Korean PDF edition

법구경 423계송

김경진

김경진 시서재 온라인 도서. 법구경 423계송을 26품으로 나누어 시집처럼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 판본입니다.

목차

엮은 말

쌍품

방일품

마음품

꽃품

어리석은 이품

지혜로운 이품

아라한품

천품

약품

폭력품

늪음품

자기품

세상품

부처품

행복품

사랑품

분노품

티끌품

법을 지닌 이품

길품

갖가지품

지옥품

코끼리품

갈애품

수행자품

바라문품

엮은 말

전체 목차 보기

이 판본은 원고의 시적 줄바꿈을 최대한 살리고, 서로 가까운 뜻을 지닌 계송 두세 편을 한 호흡으로 묶어 사진과 번갈아 만나는 느린 독서용 PDF로 구성했습니다.

총 423계송을 156개의 묶음으로 나누었고, 사진 156장을 순환 배치하지 않고 한 번씩 사용했습니다.

판형은 A5, 여백은 넉넉하게 두어 시집처럼 읽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체 목차 보기

쌍품

전체 목차 보기

1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2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3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미움이 가라앉지 않는다

4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지 않으면

마침내 미움이 가라앉으리라

5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다

6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온갖 싸움이 사라질 것을

7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며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고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가 그를 쉽게 정복한다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넘어뜨리듯이

8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잘 억제하며

먹고 마심에 절제가 있고

굳은 신념으로 정진하는 사람은

악마도 그를 정복할 수 없다

바람이 바위산을 어찌할 수 없듯이

9

더러운 때를 버리지 못하면서

승복을 입으려고 한다면

그는 승복 입을 자격이 없다

절제와 진실이 없기 때문에

10

더러운 때를 씻어 버리고

계율을 잘 지키며

절제와 진실을 지닌

사람만이

승복을 입기에 어울리는 자다

11

진실을 거짓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에 이를 수 없다

12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진실 아닌 것을 아닌 줄 알면

이런 사람은

그 바른 생각 때문에

마침내 진실에 이를 수 있다

13

허술하게 덮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행이 덜된 마음에는

욕망의 손길이 뻗치기 쉽다

14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된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들 틈이 없다

15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근심한다

자기 행실이 더러운 걸 보고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16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자기 행동이 떳떳함을 보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17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괴로워한다

‘내가 못한 짓을 했구나’ 하고

괴로워하고

지옥에 떨어져 거듭 괴로워한다

18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착한 일을 했는가’ 싶어 기뻐하고

좋은 세상에 가서

거듭 기뻐한다

19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소물이꾼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20

경전을 조금밖에 외울 수 없더라도

진리대로 실천하고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바른 지혜와 해탈을 얻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이는

진실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있다

전체 목차 보기

방일품

전체 목차 보기

21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22

이 이치를 똑똑히 알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고

성인의 경지를 즐기리라

23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깊이 하고

참을성 있고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마음의 대자유에 이르리라

24

부지런히 수행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과 행동이 맑고 신중하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대로 사는 근면한 사람은

그 이름이 빛난다

25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

26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을 가보처럼 지킨다

27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하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28

지혜로운 이가 부지런해서

게으름을 물리칠 때는

지혜의 높은 다락에 올라

근심하는 무리들을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 오른 사람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29

게으른 무리 중에서

부지런하고

잠든 사람 가운데서

깨어 있는 현자는

빨리 뛰는 말이

느린 말을 앞지르듯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30

인드라 신은 부지런하여

신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었다

부지런함은 항상 찬양을 받고

게으른 비난을 받는 법이다

31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32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어느새

대자유의 경지에 이르러

결코 물러나는 일이 없다

전체 목차 보기

마음품

전체 목차 보기

33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하듯 한다.

34

물에서 잡혀 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파닥거린다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35

불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억제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36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잘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37

홀로 멀리 가며

자취도 없이 가슴 속에 숨어든

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38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는 완성될 기약이 없다

39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40

이 몸은 물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41

아, 이 몸은 머지않아

땅 위에 누우리라

의식을 잃고

쓸모 없는 나무토막처럼 버려져 텅굴 것이다

42

적과 적이 겨루고

원수끼리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

못된 마음이 저지르는

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43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어느 친척이 베푸는 선보다도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큰 선을 베푼다

전체 목차 보기

꽃 품

전체 목차 보기

44

누가 이 대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누가 감동적인 법문 엮기를

숨쉴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 할까

45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숨쉴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46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다고

깨달은 사람은

악마의 꽃화살을 꺾어 버리고

저승의 염라왕과도 만나지 않으리라

47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신이 앓아 간다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48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마음에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49

꽃의 향기와 빛깔을 다치지 않고

꿀만을 따가는 꿀벌처럼

지혜로운 성자는

그와 같이

마을에서 마을로 걸식을 해야 한다

50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51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표현은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다

52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린다

53

쌓아 올린 꽃무더기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수 있듯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54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전단도 타가라도 자스민도 마찬가지

그러나

덕이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풍긴다

55

전단과 타가라와 푸른 연꽃 그리고

바시키 등 여러가지 향기가 있지만

덕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56

타가라나 전단의 향기는

오히려 미미해서

대단치 않다

덕행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최상의 것으로

하늘의 신들에게까지 퍼져 간다

57

덕행을 온전히 지니고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고

바른 지혜로 해탈한 사람은

악마도 가까이하지 못한다

58

한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더미

속에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뿜으며

연꽃이 피어오르듯이

59

버려진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들 속에 있으면서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제자는

지혜로써 찬란히 빛나리라

전체 목차 보기

어리석은 이품

전체 목차 보기

60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쳐 있는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리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윤희의 밤길이 아득하여라

61

나그네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는

길벗이 되지 말라

62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제 몸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제 것일까

63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만큼 그는 지혜롭다

그러나 어리석으면서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64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손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65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66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원수처럼 행동한다

고통스런 결과를 불러들일

몹쓸 행동을 하면서

67

스스로 저지른 뒤에야

뉘우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가를 치른다면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

68

스스로 행동한 뒤에도

뉘우치지 않고

즐거워 웃으면서

그 보상을 받는다면

이런 행동은 잘한 것이다

69

어리석은 자는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꿀같이 생각한다

불행한 결과가

눈앞에 닥쳐와서야

그때 비로소 뉘우치고 괴로워한다

70

어리석은 사람은

형식만을 따라

몇달이고 금욕 고행을 한다

그러나 그 공덕은

참된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71

못된 짓을 할지라도

새로 짜낸 우유처럼

그 업이 그 자리에서 곧 굳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업은

재에덮인 불씨처럼

두고두고 타면서

그의 뒤를 따른다

72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은 도리어

그의 머리를 어지럽히고

그의 행운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73

어리석은 자는

헛된 명성을 바란다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윗자리를

승단 안에서는 다스리는 권력을

남의 집에 가서는 돈과 먹을 것을 바란다

74

재가자든 출가자든

“이것은 내가 한 일이다”

“모두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지금

욕심과 자만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자라고 있는 중이다.

75

여기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이익을 추구하는 길ियो

하나는 대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부처의 제자인 수행자들은

이 이치를 깨달아

남의 존경을 기뻐하지 말라

오직 아무도 없는 길 위에 서라.

전체 목차 보기

지혜로운 이품

전체 목차 보기

76

내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준 고마운 분이니

그를 따르라

그런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뿐

나쁜 일은 결코 없으리라.

77

남을 훈계하고 가르쳐 깨우치라

사람들을 옳지 못함으로부터 구하라

이와 같은 사람을

선한 이는 사랑하고

악한 이는 미워할 것이다.

78

나쁜 벗과 사귀지 말라

저속한 무리들과도 어울리지 말라

착한 벗과 기꺼이 사귀고

지혜로운 이를 가까이 섬기라.

79

진리를 음료수로 삼는 사람은

맑은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즐긴다

성인들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80

물 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곧게 한다

목수는 재목을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81

큰 바위가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82

깊은 못은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려지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진다.

83

현명한 사람은

어디서나 집착을 버리고

쾌락을 찾는 헛수고를 하지 않는다
즐거움을 만나거나 괴로움을 만나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84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자손과 재산과 토지를 바라지 말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되기를 바라지 말라
덕행과 지혜로써
떳떳한 사람이 되라.

85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생의 저쪽 기슭에 이른 이는
아주 드물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쪽 기슭에서
갈팡질팡 헤매고 있을 뿐이다.

86

진리가 바르게 말해졌을 때
그 이치에 따르는 사람은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강을 건너
머지않아 저쪽 기슭에 이르리라.

87

지혜로운 사람은

어둠을 등지고

밝음을 찾아 나서야 한다

어둠의 집을 떠나 출가하여

고독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

88

번뇌를 물리칠 좋은 약을 구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마음의 때를 씻어 자신을 맑히라.

89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을 바르게 닦고

집착을 끊고 소유욕을 버리고

항상 편안하고 즐거우며

번뇌가 사라져 빛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대자유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전체 목차 보기

아라한품

전체 목차 보기

90

이미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그에게는

털끝만한 고뇌도 없다.

91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출가하여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호수를 등지고 떠나는 백조처럼

그들은

이 집과 저 집을 버린다.

92

재산을 모아 두지 않고

검소하게 먹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 다.

93

잡념이란 잡념은 모두 끊어 버리고

먹고 입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텅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94

잘 길들인 말처럼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자만과 번뇌를 끊어 버린 사람은

신들까지도

그를 부러워한다.

95

대지와 같이 너그럽고

문지방처럼 의무를 다하고

흙탕이 없는 호수처럼 맑은

그 같은 사람에게

윤회란 없다.

96

바른 지혜로 깨달음의 절대 평화에 이른 사람은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고

말과 행동도 고요하다.

97

그릇된 믿음 없이

절대를 깨달아

윤희의 줄을 끊어 버리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욕망을 버린 사람

그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98

마을이나 숲이나 골짜기나 평지나

깨달음을 얻은 이가

사는 곳이라면

어디이거나

그곳을 즐겁다.

99

사람들이 없는 숲 속은

즐겁지 않은 곳이라 생각할 지라도

욕망에서 벗어난 이는 그곳을 즐긴다

그들은 세속의 쾌락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목차 보기

천품

전체 목차 보기

100

쓸모 없는 말을 엮어

늘어놓는 천 마디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

101

쓸모 없는 구절을 모아

엮어 놓은 천 편의 시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시다.

102

쓸모 없는 구절을 모아

백 편의 시를 읊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것이다.

103

전쟁터에서 싸워 백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104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105

이와 같은 사람의 승리는

그 누구도 꺾어 물리칠 수 없다

음악의 신도 악마도 또한

세상을 창조한 최고의 신이라

할지라도.

106

백년 동안

다달이 천 번씩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단 한순간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더 뛰어난 일이다.

107

숲 속에서

백 년 동안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닦은 이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훨씬 뛰어난 일이다

108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일년 내내 희생을 바쳐 제사 지내도
그 공덕은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109

항상 남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건강과 장수
이 네 가지 복이
자란다.

110

비록 백 년을 살지라도
행실이 나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
덕을 지키고 고요한 마음으로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111

비록 백 년을 살지라도
어리석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지혜롭고 고요한 마음으로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112

비록 백 년을 살지라도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힘써 정진하며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113

비록 백 년을 살지라도

삶과 죽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114

비록 백 년을 살지라도

절대 평화에 이르는 길을 모른다면

그 같은 길을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115

비록 백 년을 살지라도

최상의 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전체 목차 보기

악품

전체 목차 보기

116

선한 일은 서둘러 행하고

악한 일에는 마음을 멀리하라

선한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그의 마음은 벌써 악을 즐기고 있다.

117

누가 만일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

그 일을 즐겁게 여기지 말라

악을 쌓는 것은 괴로움이다

118

누가 만일 선한 일을 했다면

항상 그 일을 되풀이 하라

그 일을 즐겁게 여기라

선한 일을 쌓는 것은 즐거움이다.

119

악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만난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난을 당한다.

120

선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121

‘내게는 업보가 닥치지 않으리라’고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방울방울 물이 고여

항아리를 채우나니

조금씩 쌓인 악이 큰 악을 이룬다

122

‘내게는 업보가 오지 않으리라’고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방울방울 물이 고여

항아리를 채우나니

조금씩 쌓인 선이 큰 선을 이룬다.

123

많은 재물을 가진 상인이

동행이 적으면

위험한 길을 피하듯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독을 피하듯

모든 악행을 피해야 된다.

124

손에 상처가 없다면

독을 손으로 만질 수 있으리라

상처가 없으면 해독을 입지 않듯이

악을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이 따르지 않는다

125

순진한 사람을 속이고

때 묻지 않은 이를 해쳤다면

그 악은 도리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바람을 거슬러 뿌린 먼지가

되돌아와 자기에게 쌓이듯이

126

어떤 사람은 모태에 다시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착한 이는 천상으로 올라가고

번뇌가 없는 이는 절대 평화에 들어간다.

127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바다 깊이 내려가도

산속 가장 깊은 동굴에 몸을 숨겨도

저지른 악의 과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128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바다 깊이 내려가도

산속 가장 깊은 동굴에 몸을 숨겨도

죽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전체 목차 보기

폭력품

전체 목차 보기

129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130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랑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131

모든 생명은 평화를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비록 자기의 행복을 구하더라도

다음 생에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하리라

132

모든 생명은 평화를 바란다.

그것을 알고

평화를 해치지 않는 자,

그는

지금 이 생의 평화를 누리고

다음 생의 평화도 얻는다.

133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분노의 말은 고통이 된다

그 보복이 네 몸에 돌아온다.

134

깨진 종이 소리를 내지 않듯이

그대도 잠잠하라

다툼의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에 도달한 것이다

135

소치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소를 몰아 목장으로 데리고 가듯

늪음과 죽음도

모든 생명의 목숨을

그렇게 몰아 간다

136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악한 짓을 하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지은 업의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면서

괴로워한다.

137

죄 없는 순진한 사람을

폭력으로 해치는 자

열 갈래 응보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돌아오리

138

견디기 어려운 심한 고통

보기 흉한 늙음

육체적인 상처와 무서운 질병

그리고

미쳐 날뛰는 정신 착란.

139

권력으로부터 입는 재앙

지독한 모함

일가 친척의 멸망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다.

140

또는 불이

그의 집을 태우고

몸이 무너진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리니

이것이 열 가지 응보이다

141

나체의 고행도

소라처럼 틀어 올린 머리도

온몸을 뒤덮은 먼지도

굶주림의 단식도

맨땅에 몸을 눕히는 일도

재를 몸에 바르는 일도

웅크리고 앉아 있는 고행도

의혹을 넘어서지 못한 자를

깨끗하게 해 줄 수는 없다

142

몸의 치장이야 어떻든

평온한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고

육체의 욕망을 끊고

산 목숨을 해치지 않으면

그가 곧 수도승이다.

143

누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잘 참는 사람일까

그는

아무에게도 비난 받지 않으리라

좋은 말은 채찍을 받지 않듯이.

144

채찍을 받은 좋은 말처럼

부지런히 힘써 수도하라

신심과 계율과 정진으로

삼매와 지혜를 갖추고

바른 앎과 바른 행으로

깨어 있는 마음을 지켜

이 크나큰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145

물 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곧게 한다

목수는 재목을 다듬고

덕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단련한다.

전체 목차 보기

늡음품

전체 목차 보기

146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는 암흑에 둘러싸인 채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147

보라, 이 꾸며 놓은 몸뚱이를
상처로 가득 차 있고
빠로 얹혀 있으며
질병과 욕망으로 뒤덮인 이것
영원하지도 견고하지도 않은
이 몸을 보라

148

이 몸은 늡고 시들어
질병의 주머니로 허물어진다
씩은 육신은 마디마디 흠어지고
삶은 끝내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149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 들녘에 버려진 표주박
살은 썩고
흰 뼈다귀만 텅굴 텐데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150

빠로써 성곽을 이루고
살과 피로 포장이 되었다
그 안에
늡음과 죽음 자만과 거짓이
도사리고 있다.

151

화려한 왕의 수레도 닳아 없어지고
이 몸도 그와 같이 늡어 버리지만
선한 이의 가르침은 시들지 않는다
선한 사람끼리 진리를 말하므로

152

배우지 않는 사람은
황소처럼 늡어 간다
살은 두둑이 오르지만
지혜는 끝내 자라지 않는다

153

이 집을 지은 자를 찾아
이 생에서 저 생으로 헤매었으나
끝내 만나지 못한 채
수많은 생을 흘려보냈다
태어남은 그 어느 생이든 괴로움이었다

154

집을 지은 자여, 이제 나는 그대를 보았다
그대는 다시 이 집을 짓지 못하리라

기둥은 모두 부서졌고

서까래는 남김없이 내려앉았다

마음은 온갖 것에서 떠났고

갈망은 뿌리까지 말라 버렸다

155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정신적인 재산을 모아 두지 못한 사람은

고기 없는 연못가의 늙은 백로처럼

쓸쓸히 죽어 갈 것이다.

156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정신적인 재산을 모아 두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활처럼

쓰러져 누워

부질없이 지난 날을 탄식하리라.

전체 목차 보기

자기품

전체 목차 보기

157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면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밤의 세 때 중

한 번쯤은

깨어 있어야 한다.

158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갖추고

그런 다음에 남을 가르치라

이와 같이 하는 지혜로운 이는

괴로워할 일이 없으리라.

159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160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만이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다

161

내가 저지른 죄악은

바로 내게서 일어난 것

금강석이 여의주를 부숴 버리듯

어리석은 자를 부숴 버린다.

162

성질이 포악한 자는

참덩굴이 큰 나무를 휘감아

말라 죽기를 기다리듯

원수의 소원대로

저절로 파멸하고 만다.

163

악하고 자기에게 해로운 일은

지극히 하기 쉽다

그러나 이롭고 선한 일은

참으로 하기 어렵다

164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성자의 가르침을

좁은 생각으로 비난하는 어리석은 자는

열매를 맺고 시들어 죽는 갈대처럼

그 비난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165

내가 악행을 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내가 선행을 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그러니 깨끗하고 더러움은

내게 달린 것

아무도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

166

남의 일이 아무리 크더라도

제 할 일을 뒷전으로 밀지 말라

자기가 해야 할 일임을 알고

그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라.

전체 목차 보기

세상품

전체 목차 보기

167

비열한 짓을 하지 말라

게으름을 피우며 건들거리지 말라

그릇된 견해에 따르지 말라

세상에 오래 머무르지 말라

168

떨치고 일어나라

게으름 피우지 말라

선행의 도리를 직접 실천하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169

뒤틀린 행동을 하라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170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171

자, 이 세상을 한번 보라
왕의 수레처럼 잘 꾸며진 이 세상을
어리석은 자는 여기에 빠져들지만
지혜로운 자는 집착하지 않는다

172

이전에는 게을렀어도
지금 게으르지 않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173

어찌다가 못된 짓을 했더라도
착한 행동으로 덮어 버린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174

이 세상은 깜깜한 암흑
여기서
분명하게 가려 보는 이는 드물다

175

백조는 태양의 길을 가고
신통력 있는 이는 허공을 난다
지혜로운 이는
악마와 그 무리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벗어난다.

176

오직 하나인 진리를 어기고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오는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악이라도 범하고 만다.

177

욕심 많은 사람은
천상에 갈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베품을 기뻐하니
그로 인해 내세의 행복을 얻는다

178

온 세상의 왕이 되기보다
천상에 올라가기보다
온 세상을 다스리기보다
진리의 흐름에
첫발을 들여놓는 일이
더 뛰어나다
전체 목차 보기

부처품

전체 목차 보기

179

부처의 승리는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승리에 이를 자

이 세상에 없다

그의 경지는 가없이 넓어

끝도 없고 자취도 남기지 않으니

180

그물처럼 뒤얽힌 욕망조차

그를 유혹할 수 없다

행함에 다함이 없고

자취도 남기지 않는 부처를

그 누가 무슨 길로

이끌어 낼 수 있으랴

181

깨달음을 얻어 깊이 생각하고

명상에 전념하며

출가의 적정을 즐기는

그 지혜로운 이를

신들도 사랑한다

182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죽어야 할 존재가 목숨 부지하기 어렵고

바른 가르침을 듣기도 어렵고

부처가 세상에 나오기도 어렵다

183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184

참고 견뎌는 최상의 고행

열반은 최상의 경지라 부처들은 말씀하셨다

남을 해치는 자는 수행자가 아니고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185

남을 헐뜯지 말고 상처 입히지 말며

계율을 지키고 음식을 절제하며

홀로 한가히 앉아 사색에 전념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186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쾌락은 잠깐의 달콤함이요

뒤에 오는 괴로움이 훨씬 크다

187

지혜로운 이는 그와 같이 알아

천상의 쾌락도 기뻐하지 않는다

바르게 깨달은 이의 제자는

갈래의 소멸을 기뻐한다

188

공포에 쫓긴 사람들은

산과 숲 속으로 들어가

동산과 나무와 사당에 제사하며

의지할 곳을 찾는다

189

그러나 그곳은

안전하게 의지할 곳도

가장 좋은 곳도 아니다

그런 의지처에 기대서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190

부처와 가르침과

승단에 의지할 곳을 찾은 사람은

바른 지혜를 가지고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본다

191

괴로움과

괴로움이 일어난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을 소멸로 이끄는

여덟 갈래 거룩한 길을 본다

192

이것만이 안전하고

뛰어나 의지할 곳 이런 의지할 곳을

얻은 후에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193

부처는 만나기 어렵다

아무데서나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성자가 태어난 집안은

영원히 평화롭고 번창할 것이다

194

깨달은 이의 출현은 즐겁고

바른 설법을 듣기도 즐겁다

승단의 화합도 즐겁고

화합한 사람들의 수행도 즐겁다

195

공양받아 마땅한 분들이 있다.

허망한 말다툼의 자리에서 이미 걸어 나온 분들

근심과 걱정의 강을 모두 건너간 분들

곧 부처와 그의 제자들이다.

그분들 앞에 공양을 올리는 일— 그 자리에 서 보라

196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그 공덕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으리

전체 목차 보기

행복품

전체 목차 보기

197

원한을 품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원한을 버리고 즐겁게 살자

원한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라도

원한에서 벗어나 살자.

198

고뇌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고뇌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고뇌하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고뇌에서 벗어나 살자.

199

탐욕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탐욕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탐욕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탐욕에서 벗어나 살자.

200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우리는 크게 즐거이 살자

광음천의 신들이 그러하듯

기쁨을 양식으로 삼아 살자

201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 누워 있다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승패를 버리고

즐겁게 산다.

202

이 세상의 어떤 불길도 사람의 욕망보다 뜨겁지 않다.

노름판에서 가진 것을 모두 잃는 것보다 더 나쁜 패는 증오다.

잠시 인연으로 엮여 있는 이 한 몸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고

마음이 고요해진 자리보다 더 깊은 평화의 자리는 없다

203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이 몸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 이치를 있는 그대로 안다면

거기 대자유의 평화로움이 있다.

204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친구

대자유는 최고의 평화이다.

205

고독의 맛과 마음의 평화를 직접 체험한 사람은

명상의 기쁨을 맛보면서

두려움 없이 악에서 떠난다.

206

성인들과의 만남은 좋은 일이다

함께 살게 되면 항상 즐겁다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늘 편안하고 즐겁다.

207

어리석은 자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에겐

오래도록 근심이 따른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원수와 같이 사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살면

친척들의 모임처럼 즐겁기만 하다.

208

그러므로 달은 천체의 궤도를 따르듯이

지혜롭고 널리 배우고 잘 참고 믿음 있고 거룩한

이런 선인과 선지식을 따르라.

전체 목차 보기

사랑품

전체 목차 보기

209

잡념에 빠져 명상에 전념하지 못하고

뜻있는 일을 버리고

쾌락만을 따르는 사람은

명상에 잠긴 이를 부러워한다.

210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211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애써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커다란 불행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엽매임이 없다.

212

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213

애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정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214

쾌락에서 근심이 생기고

쾌락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쾌락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215

욕정에서 근심이 생기고

욕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정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216

헛된 집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헛된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헛된 집착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217

덕과 지혜를 갖추어 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말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이웃에게서

사랑을 받는다.

218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자 하고

생각이 깊고

온갖 욕망에서 벗어난 이를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이’라 부른다.

219

오랜 세월

타향으로 떠돌다가

무사히 고향에 돌아온 사람을

친척과 친구들은

반갑게 맞아들인다.

220

이와 같이 착한 일 하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선한 보상으로 환영받는다

전체 목차 보기

분노품

전체 목차 보기

221

성냄을 버리자

자만을 버리라

그 어떤 속박에서도 초월하라

이름과 모양에 집착이 없고

가진 것 없으면

그는 고뇌에 쫓기지 않는다

222

달리는 수레를 멈추게 하듯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는 이를

나는 진짜 마부라고 부르겠다

다른 사람은 고삐만을 쥐고 있을 뿐이다.

223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써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써 거짓을 이기라.

224

진실을 말하라 성내지 말라

가진 것이 적더라도 누가 와서

원하거든 선뜻 내어주라

이 세 가지 덕으로 그대는

신들 곁으로 간다.

225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항상 육신을 억제하는 성자는

슬픔이 없는 불사의 자리에 이르러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다

226

사람이 항상 깨어 있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절대 자유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온갖 번뇌는

저절로 사라지리라.

227

이것은 예로부터 전해 오는 말이니

오늘 비로소 생긴 일이 아니다

입을 다물어도 사람들은 비난하고

말을 많이 해도 비난하며

말을 아껴도 비난한다

이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228

오직 비난만 받는 사람도

오직 칭찬만 듣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다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29

만일 어떤 성인이

날마다 살피면서

허물 없이 살고 지혜롭고

지식과 덕행 있는 이를

칭찬한다면

230

누가 그를 비난하겠는가

그는 잠부 강의 순금으로 만든 금화 같은 존재

231

몸의 성냄을 막고

몸을 억제하라

몸의 악행을 버리고

몸으로써 선을 행하라.

232

말의 성냄을 막고 말을 삼가라

말의 악행을 버리고

말로써 선을 행하라.

233

마음의 성냄을 막고

마음을 억제하라

마음의 악행을 버리고

마음으로써 선을 행하라.

234

지혜로운 이는 몸을 억제하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한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을 잘 지키고 있다.

전체 목차 보기

티끌품

전체 목차 보기

235

그대는 이제 시든 낙엽

염라왕의 사자도 그대 곁에 와 있다

그대는 죽음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노자마저 없구나

236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곳을 만들라

부지런히 수행하여 지혜로워져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천상의 성지로 올라가리라

237

그대의 생애는 종점에 다다랐다

그대는 이미 염라왕 앞에 와 있다

가는 길에 쉴 곳도 없고

노자도 챙기지 못했구나

238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곳을 만들라

부지런히 수행하여 지혜로워져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다시 삶과 늙음이 다가서지 못하리라

239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자기 때를 벗긴다

은세공이

은에 묻은 때를 벗기듯이

240

쇠에서 생긴 녹이

쇠에서 나서

쇠를 먹어 들어가듯

자기 행위가 도를 넘은 자를

자기 업이 나쁜 곳으로 이끌어 간다

241

독경하지 않으면 경전이 때문고

수리하지 않으면 집이 때문으며

옷차림을 게을리하면 용모가 때문고

게으름은 지키는 이의 때이다

242

부정한 짓은 부녀자의 때

인색은 베푸는 이의 때

악덕은 참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때다

243

이런 더러운 때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때는 무지(無明)이다

수행자들이여, 이 때를 씻어 버려

그대들은 때 없는 이가 되라

244

얼굴이 두터워

수치를 모르고

뻔뻔스럽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마음이 때묻은 사람에게는

인생은 살아가기 쉽다

245

수치를 알고

항상 깨끗함을 생각하고

집착을 떠나 조심성이 많고

진리를 보고 조출히 지내는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 힘들다

246

산 목숨을 죽이고

거짓을 말하고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247

곡식이나 과일로 빚은 술에

빠져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 뿌리를 파내고 있다

248

사람들아, 이와 같이 알아 두라

자제할 줄 모름은 악덕이라고

탐욕과 부정으로 인해

오랜 괴로움을 받지 말라

249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 베풀다

남이 베푸는 음식에

만족할 줄 모르면

그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250

만일 이 불만의 생각을 끊어

뿌리째 없애버린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한결 같이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

251

정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성냄보다 더한 밧줄은 없으며

어리석음보다 더한 그물은 없고

헛된 집착보다 더한 강물은 없다

252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겨처럼 온 세상에 흩어 퍼트리면서

자기 허물은 투전군이

나쁜 패를 감추듯 한다

253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

항상 불평을 품는 사람은

번뇌의 때가 점점 자란다

그의 번뇌는 자꾸만 불어난다

254

허공에는 자취가 없고

바깥에는 진정한 수행자가 없다

사람들은 망상을 즐기지만

여래는 망상에서 벗어나 있다

255

허공에는 자취가 없고

바깥에는 진정한 수행자가 없다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깨달은 이들은 흔들림이 없다

전체 목차 보기

법을 지닌 이품

전체 목차 보기

256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해서

공정한 사람은 아니다

옳음과 그름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는 이가

현명하다.

257

강제가 아니고

정의와 순리대로 남을 인도하고

정의를 지키는 지혜 있는 사람을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258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안전하고 원한 없고

두려움 없는 이를

지혜로운 이라 부른다

259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다

적게 들었을지라도 몸으로 법을 보고

법에 게으르지 않은 이

그가 법을 지닌 이다

260

머리카락이 희다고 해서

큰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만 먹은 이는

그저 헛되이 늙은 자일 뿐

261

진실과 진리와

불살생과 절제와 자제로써

더러운 때를 벗어 버린 사람을

큰 스승이라 한다.

262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용모가 번듯하더라도

질투와 인색과 속임수가 있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263

질투와 인색함과 속임수를

뿌리째 뽑아 버리고

성냄에서 벗어난 사람을

훌륭한 인물이라 한다.

264

마음에 뜻한 바 없고

거짓말하는 자는

머리를 깎았더라도 수행자가 아니다

265

작거나 크거나 악을 가라앉힌 사람은

모든 악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수행자라고 부를 수 있다

266

걸식하는 그것만으로

수도승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허위의 법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자는

그 이름만의 수도승일 뿐이다

267

이 세상에서 선도 악도 다 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끊어 순결을 지키고

신중하게 처세하는 사람을

진정한 수도승이라고 한다

268

침묵을 지키더라도

어리석고 무지하면

성자가 될 수 없다

지혜로운 이는 저울을 들 듯

선을 헤아려 택하는 자이다

269

악을 물리치면

그것으로 그는 성자이다

270

중생을 해치면

그는 성자가 아니다

중생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성자라 한다.

271

계율과 청규를 지키는 것만으로

많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삼매를 얻는 것만으로

홀로 거처하는 것만으로는

272

범부가 맛보지 못하는

해탈의 기쁨을 얻었다고

비구여, 안심하지 말라

번뇌가 다 사라지기 전에는

전체 목차 보기

길품

전체 목차 보기

273

모든 길 가운데 팔정도가 으뜸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 사성제가 으뜸이다

모든 법 가운데 이욕(離欲)이 으뜸이고

두 발 가진 이 가운데

눈을 뜬 이가 으뜸이다

274

이것이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진리를 보는 눈을 맑게 하는 길은 오직 이 하나뿐이다.

그대들이여, 이 길을 따라 걸으라.

그 걸음 하나하나가 마라의 눈을 흐리게 할 것이다

275

그대들이 이 길을 가면

괴로움을 없애게 되리라

나는 괴로움의 화살을 뺄 줄 알고

이 길을 열어 보였다.

276

애쓰는 일은 그대들의 몫

여래는 다만 길을 일러 주는 이다

이 길을 걷는 선정의 수행자들은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277

모든 형성된 것은 덧없다

지혜로 이를 꿰뚫어 보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278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지혜로 이를 꿰뚫어 보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279

모든 법에는 실체가 없다

지혜로 이를 꿰뚫어 보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280

일어설 때 일어서지 않고

젊고 힘이 있는데 게으름에 빠지고

의지와 생각이 나약한 사람은

지혜의 길을 찾지 못한다

281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하고

몸으로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이 세 행의 길을 깨끗이 한 이는

성자가 가르친 길을 얻으리라

282

명상에서 지혜가 생기고

명상이 없으면 지혜도 사라진다

이 두 갈래 길을 알아

지혜가 자라나는 쪽으로 스스로를 세우라

283

한 그루의 나무만 베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베어 내라

숲에서 두려움이 태어나나니

숲과 덤불을 모두 베어야

수행자는 숲에서 벗어난다

284

여자를 향한 남자의 욕정이

조금이라도 뽐히지 않는 한

송아지가 어미 소를 찾듯

그의 마음은 얽매여 있다

285

가을 연꽃을 손으로 꺾듯

자신의 욕정을 끊으라

적정의 길을 닦으라

열반은 깨달은 이가 설한 것이다

286

장마철에는 여기서 살고

겨울철에는 저기서 살자고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지만

죽음이 가까운 줄 깨달지 못한다.

287

어린이나 가축에만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집착한 사람은

죽음으로 휩쓸어 간다

큰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이

288

자식도 구해 줄 수 없고

부모도 친척도 구해 줄 수 없다

피로 맺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한번 죽음의 손에 붙잡힌 자를

돌려세울 길은 없다

289

이 도리를 깨닫고

지혜로운 이는

계율을 지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을 서둘러 밝히라

전체 목차 보기

갖가지품

전체 목차 보기

290

작은 쾌락을 버림으로써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지혜로운 이는

큰 기쁨을 바라보고

작은 쾌락을 버린다

291

남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자는

원한의 사슬에 얽매어

벗어날 기약이 없다

292

해야 할 일을 소홀히 여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교만과 방종에 빠진 사람에게

번뇌는 점점 늘어만 간다

293

항상 이 몸의 정체를 생각하여

그 덧없음을 잘 알고

294

갈애라는 어머니를 베고

자만이라는 아버지를 베고

두 견해의 왕을 쓰러뜨리고

감각의 영토와 그 추종자들을 무너뜨린 자

그는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

295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고

두 왕을 죽이고 다섯 번째 호랑이를

죽이고도 수행자는 꼬떡없이 나아간다

296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 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를 생각한다

297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 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의 가르침을 생각한다

298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 있고

밤이나 낮이나 승단을 생각한다

299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 있고

밤이나 낮이나 육신의 덧없음을 생각한다

300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 있고

밤이나 낮이나 불살생으로 그 마음이 즐겁다

301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 있고

밤이나 낮이나 그 마음이 즐겁다

302

출가 생활은 힘들어 즐거움을 얻기 어렵다

집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괴롭다

마음에 맞지 않는

무리와 사는 일 또한 괴롭다

무엇을 찾아 나서도 괴로움을 만난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지 말라

그러면 고통에서 떨어지지 않으리라

303

믿음이 있고 덕행을 갖추고

명성과 번영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304

어진 사람들은 히말라야처럼 멀리서도 빛난다

못된 사람은 밤에 쏜 화살처럼

가까이서도 보이지 않는다

305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다녀도

지치지 않고

자신을 억제하며

숲속에서

홀로 즐기라

전체 목차 보기

지옥품

전체 목차 보기

306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저지르고도 '나는 하지 않았다' 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 모두 저열한 행위를 한 자이니

내세에서 같은 자리에 서게 되리라

307

승복을 머리에서부터 덮어쓰더라도

성질이 나쁘고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악행으로

지옥에 떨어진다

308

계율을 지키지 않고

절제하지 않은 채

남이 바치는 것을 받아 쓰기보다는

차라리 불에 달궈진 쇳덩이를 삼키라

309

방탕하여 남의 아내를 유혹하는 자는

다음 네 가지 일과 만난다

310

화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지옥에 떨어지고

두려운 가운데 늘 조마조마하고

나라에서도 무거운 벌을 내린다

311

억새풀도 잘못 만지면

손을 베듯이

수행자가 그릇된 짓을 하면

지옥이 그를 끌어들인다

312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맹세를 더럽히고

마지못해 수도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다

313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뜻 나서서 부지런히 힘쓰라

게으른 수행자는 오히려

더 많은 티끌을 흠뿌릴 뿐이다

314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상책

악행은 뒤에 가서 뉘우친다

해야 할 선행은 하는 게 상책

선행은 나중에도 후회가 없다

315

변두리에 있는 성을

안팎으로 지키듯이

자기 자신을 지키라

찰나의 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찰나를 놓친 이들은

지옥에 떨어져 근심하리라

316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잘못된 견해를 가진 자들은

나쁜 곳으로 떨어진다

317

두려울 것이 없는데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견해를 가진 자들은

나쁜 곳으로 떨어진다

318

죄가 없는데 있다 생각하고

죄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319

죄가 있으니 있는 줄 알고

죄가 없으니 없는 줄 아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착한 곳에 이르리라

전체 목차 보기

코끼리품

전체 목차 보기

320

싸움터에서

화살을 맞고도 참고 견디는 코끼리처럼

나도 비난을 견디리라

사람들 중에는

질이 나쁜 무리도 있으니까

321

전쟁터로 끌려 나가는 코끼리도 길든 코끼리요,

왕이 올라타는 코끼리도 길든 코끼리다.

거친 자리와 귀한 자리,

그 양쪽에 모두 쓰이는 것이 길든 것이다.

322

길들인 당나귀도 좋다

인더스 산의 명마도 좋다

전쟁용 큰 코끼리도 좋다

그러나 자신을 다루는 사람은 더더욱 좋다

323

당나귀나 말이나 코끼리로도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는 갈 수 없다

오직 잘 다루어진 자기를 탄 사람

그 사람만이 거기에 갈 수 있다

324

‘재산을 지키는 자’로 불리는

코끼리는 발정기가 되면

관자놀이에서 독한 진액을 분비한다

사나워 다루기가 아주 힘들고

잡혀도 전혀 먹이를 먹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숲 속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325

빈둥거리면서 먹기만 하고

잠만 자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사육하는 살찐 돼지와 같아

몇 번이고

태 안에 드나들며 윤회하리라

326

예전에 이 마음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쾌락을 따라 헤매었다

이제 나는 그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리라

코끼리 물이꾼이

발정한 코끼리를 다스리듯이

327

방종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지키라

높에 빠진 코끼리처럼 어려운 곳에서

자기를 구하라

328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하며

지혜로운 도반이 될 친구를 만났거든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라

모든 위험을 이기며

329

그러나 생각이 깊고 총명하며

성실한 지혜로운 도반을 만나지 못했거든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왕처럼

코끼리가 숲 속을 홀로 다니듯

홀로 가라

330

홀로 살아감은 뛰어난 것

어리석은 자와는 벗하지 말라

숲을 홀로 거니는 코끼리처럼

근심을 놓고 악을 짓지 않으며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라

331

일이 생겼을 때 벗이 있음은 즐겁고

만족은 어떤 경우에도 즐겁다

착하게 살면 죽는 순간에도 즐겁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즐겁다

332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공경함은 즐겁고

아버지를 공경함도 즐겁다

수행자를 공경함도 즐겁고

수도승을 공경함도 즐겁다

333

늙을 때까지 계율을 지키는 일 즐겁고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리는 일 즐겁다

밝은 지혜를 얻는 일 즐겁고

온갖 나쁜 일 벗어남도 즐겁다.

전체 목차 보기

갈애품

전체 목차 보기

334

방탕한 자의 욕망은

침덩굴처럼 무성하게 자란다

그는 이 생에서 저 생으로 헤매 다니니

숲의 과일을 찾아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335

이 세상에서

천박한 집념과 불타는 욕망에

정복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쉬지 않고 자란다

336

이 세상에서

천박하고

불타는 욕망을 억제한 사람은

온갖 근심 걱정이

말끔히 사라지리라

337

욕망의 뿌리를 캐어내라

그리고 갈대가 물결에 꺾이듯이

악마에게 꺾이지 않도록 하라

338

나무가 잘려 나가도

뿌리가 깊으면 새 움이 돋아나듯

갈래의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이 괴로움은 거듭거듭 되살아난다

339

감각마다 스며드는 서른여섯 갈래의 갈래가

거센 물결이 되어 그를 실어 나르고

탐욕에서 자라난 생각의 파도가

잘못된 견해에 빠진 그 사람을 끝내 삼킨다

340

욕망의 물결은 사방으로 흐르고

쾌락의 덩굴은 이리저리 뻗는다

덩굴이 뻗어가는 줄 알고 있다면

지혜의 칼로 그 뿌리를 도려내라

341

인간의 쾌락은 지나치기 쉬워

그 애착은 축축하게 젖는다

환락에 빠져 쾌락을 찾는 사람은

삶과 늙음의 괴로움을 받는다

342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토끼처럼 맴돈다

속박과 집착의 그물에 걸려 두고두고

괴로움을 받는다

343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토끼처럼 맴돈다

그러니 수행자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육체의 욕망을 털어 버려라

344

욕망의 숲에서 나왔으면서

다시 욕망의 숲에 마음을 기울이고

욕망의 숲에서 벗어났으면서

또다시 욕망의 숲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보라

345

지혜로운 이는

쇠와 나무와 풀로 엮은 사슬을

강한 속박이라 말하지 않는다

보석과 장신구에 대한 집착

아내와 자식에 대한 집착

이것이야말로 강한 속박이다

346

이런 속박은 무겁고

풀기 힘들다고 지혜로운 이는 말한다

이것을 끊고 쾌락을 떠나

출가하는 이를 보라

347

애정에 걸려 있는 자는

욕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거미가 자신이 만든 줄에 매달리듯이

348

앞과 뒤를 버리고

중간도 버리라

존재의 저쪽 기슭으로 건너가

마음이 해탈한 이는

다시는 생과 늡음에 이르지 않으리라

349

의혹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끈질긴 집착에 얽혀

욕망을 깨끗하다고 보는 사람은

갈수록 집착이 늘어나

속박의 끈을 조인다

350

의혹이 사라짐을 기뻐하고

부정한 것을 부정하게 보고

항상 생각이 깊은 사람은

악의 속박을 함께 끊을 것이다

351

깨달음에 이르러

두려움이 없고

욕망도 죄도 없는 사람은

이미 생사의 화살을 꺾었다

이것이 마지막 몸이다

352

욕망을 떠나 집착도 없고

경전의 말씀과 그 뜻을 꿰뚫어

문장과 그 맥락을 알고 있으면

그는 마지막 몸을 가진 사람

353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으며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갈애의 소멸로 해탈하였으니

스스로 깨달았는데

누구를 스승이라 부르랴

354

진리를 베푸는 것이 최고의 베품이고

진리의 맛은 맛 중의 맛이며

진리의 기쁨은 기쁨 가운데 으뜸이다

갈애의 소멸이 모든 괴로움을 이긴다

355

재물은 어리석은 자를 파멸시키지만

저쪽 기슭을 구하는 이는 파멸시키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에 대한 갈망 때문에

남을 해치듯 자신을 해친다

356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욕정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욕정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357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성냄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성냄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358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어리석음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어리석음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359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욕망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욕망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전체 목차 보기

수행자품

전체 목차 보기

360

눈을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고

귀를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다

코를 자제하는 것도 착한 일이고

혀를 자제하는 것도 착한 일이다

361

육신을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고

말을 자제하는 것도 착한 일이다

생각을 자제하는 것도 착한 일이고

모든 것을 자제하는 것 또한 착한 일이다

362

손을 삼가고 발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지극히 삼가고

안으로 기뻐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홀로 넉넉한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수행자라 부른다

363

혀를 조심하고 생각을 깊이 해 말하고

잘난 체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과 진리를 밝히는

수행자의 설법은

감미롭다

364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에 따라 명상하고

진리를 따르는 수행자는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365

자기가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남을 부러워하는 수행자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366

비록 적게 얻었더라도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수행자는

신들도 칭찬할 것이다

그의

깨끗하고 게으르지 않은 생활을 보고

367

몸과 마음에

내 것이란 생각 없고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를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368

자비로운 생활을 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믿는 수행자는

고요를 얻고

윤회가 멎은

축복받은 대자유에 이르리라

369

수행자여

배 안에 스며든 물을 퍼내라

배가 가벼워

속력이 빨라질 것이다

370

다섯 가지 집착을 끊어 버리고

다섯 가지 집착을 던져 버리고

또다시 다섯 가지 집착을 극복하라

이 다섯 가지 집착을 초월한 수행자는

거센 바다를 건넌 사람이다

371

수행자들이여, 명상하라

되는대로 지내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쾌락 속에서

떠돌지 않게 하라

방일한 자는 쇠공을 삼키고도

‘아, 괴롭구나’ 외치게 되리라

372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깊은 명상이 없고

깊은 명상이 없는 자에게는 지혜 또한 없다

지혜와 깊은 명상을 갖춘 사람은

절대 자유에 가까워진 것이다

373

인기척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른 진리를 관찰하는 수행자는

인간을 초월한 기쁨을 누린다

374

이 몸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 줄 알면

마음은 깨끗한 즐거움에 잠기어

절대 자유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375

지혜로운 수행자가

처음 할 일은 감각을 지키고

만족할 줄 알고

계율에 따라 절제하고

맑고 부지런한 친구와 사귀는 일이다

376

그리고 항상 친절하라

우정을 다하고 착한 일 하라

그러면 기쁨이 넘쳐 괴로움을

말끔히 없애게 되리라

377

자스민 꽃이 시든 꽃잎을 떨쳐 버리듯이

수행자여 탐욕과 성냄을 떨쳐 버려라

378

행동이 고요하고 말씨가 고요하며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의 쾌락을 뺏아 버린 수행자를

고요한 이라 부른다

379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라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라

자신을 지키고 반성하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게 되리라

380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의 의지할 곳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381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는

기쁨에 넘쳐 고요하며

생사윤회가 멎은

절대 평화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382

비록 나이 어리더라도

부처의 가르침에

전념하는 수행자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전체 목차 보기

바라문품

전체 목차 보기

383

수행자여, 단호히 욕망의 흐름을 끊으라

육체의 쾌락을 내던져 버리라

형성된 것들의 소멸을 알아

조작되지 않은 경지를 아는 자가 되라

384

수행자가 만일 두 가지 법으로

생의 저쪽 기슭에 이르렀다면

이 지혜로운 이에게서

온갖 속박은 사라질 것이다

385

이쪽 기슭도 없고 저쪽 기슭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속박도 없는 사람을

나는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386

마음이 안정되어 갈등 없이 살며

할 일을 다해 번뇌가 없고

최고의 목적에 도달한 사람을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387

태양은 한낮에 빛나고

달은 한밤에 빛나며

무사는 갑옷 입고 빛나고

바라문은 선정으로 빛난다

그러나 부처는 밤낮으로

그 위엄의 빛을 비춘다

388

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수행자라 하고

행동이 고요하기 때문에 수행자라 하며

자신의 때를 씻어 버렸기 때문에 출가자라 한다

389

수행자를 때리지 말라

수행자는 맞아도 거역하지 않는다

수행자를 때리면 재앙이 온다

그러나 맞고서 성을 내어도 재앙이 온다

390

수행자가 쾌락으로부터

마음을 억제한다면 큰 보상이 있다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는 그만큼

괴로움은 가라앉으리라

391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이 셋을 잘 억제하는 사람을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392

바르게 깨달은 분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누구에게서든 배웠거든

그 사람을 공경하라

바라문이 거룩한 불을 섬기듯이

393

머리의 꾸밈새와

가문이나 태생에 의해

수행자

되는 것은 아니다

394

어리석은 자여,

머리의 모습이 무슨 소용인가

가족옷을 입고 어쩔 셈인가

그대의 속은 더러운 밀림 거죽만

그렇듯하게 치장했구나

395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여위어 양상하게 힘줄이 드러난 채

홀로 숲 속에서 명상에 깊이 잠겨 있는 이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396

수행자 집안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수행자 집안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이를

나는

수행자라 부르지 않는다

그는 차라리 귀족이라 불려야 한다

397

모든 속박을 끊어 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을 초월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398

노끈과 밧줄과 쇠사슬을

말안장과 함께 끊어 버리고

장애물을 없애 깨달은 이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399

모욕과 학대와 투옥에도 성내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

인내력이라는 강한 군대를 가진 이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00

성내지 않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도덕적 규율을 지키고

맑고 순수하며 이번 생의 몸이

마지막 몸인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01

연잎의 물방울이나 바늘 끝의 겨자씨처럼 어떠한

욕망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02

이 세상에서 그의 고통이 다 끝난 줄 알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초연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03

지혜가 깊어 현명하고

바른 길과 그른 길을 분별하고

최고의 목적에 도달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04

집에서 사는 이든 출가자이든

아무하고도 사귀지 않고

집 없이 다니며 욕심 적은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05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살아 있는 것에 폭력을 쓰지 않고

죽이거나 죽게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06

미움을 가진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미움이 없고

난폭한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 편하고

집착하는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07

탐욕과 성냄과

자만과 위선이

바늘 끝의 겨자씨처럼 떨어져 나간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08

거칠거나 속되지 않고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고

말로써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09

이 세상에서

길거나 짧거나

작든 크든

깨끗하든 더럽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10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도 없고

사로잡히지도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11

아무런 집착도 없고

다 깨달아 의혹이 없고

죽음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12

이 세상에서 선악을 다 버리고

집착을 초월해 근심이 없고

더러움 없이 맑은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13

달처럼 깨끗하고 흐림 없이 맑고

쾌락이 일지 않게 다 없앤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14

이 험하고 힘든 길 윤희와 미혹을 넘어

삶의 저쪽 기슭에 이르러

마음이 안정되고 욕심 없고

의혹 없고 집착을 떠나 마음 편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15

이 세상의 욕망을 모두 끊어 버리고

집을 떠나 방랑을 하고

욕망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16

이 세상의 집착을 모두 끊어 버리고

집을 떠나 방랑을 하고

집착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17

인간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천상의 인연도 초월하고

온갖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한다

418

즐거운 일 괴로운 일 다 버리고

늘 깨어 있어 번뇌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한다

419

중생의 삶과 죽음을 알고

집착하지 않고 바르게 살고 깨달은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20

번뇌가 다해 신도 귀신도

사람들도 그 자취를 알 수 없는

존경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21

앞에도 뒤에도 중간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빈손으로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22

황소처럼 씹씹하고

기품 있고 늠름하며

큰 현자며 승리자며

욕심 없고 때를 씻어 버린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423

전생 일을 알고

천상과 지옥을 보고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지혜의 완성자

모든 것을 깨닫고

성취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전체 목차 보기

이 책을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있는 지식을 얻으셨다고 판단되시면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김경진) 에 자발적 후원 부탁드립니다.